

회갑 맞은 광주시… 24일 시민들 함께 즐긴다

광주시가 60번째 생일을 맞아 시민들을 초대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시민의 날' 60주년을 맞아 오는 24일 시청 일원에서 시민이 함께 만들고 즐기는 대규모 축제를 연다.

올해 '시민의 날'은 '광주만세'를 주제로, 광주의 6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진다. 기념식과 문화공연, 시민참여무대, 정책 전시, 체험행사까지 온 가족이 하루종일 즐길 수 있는 종합축제로 운영된다.

'광주시민의 날'인 5월21일은 1980년 5월, 시민 항거에 계엄군이 퇴각한 날이다. 광주시는 이를 기리기 위해 기존 11월1일이던 시민의 날을 2010년부터 5월21일로 변경해 기념하고 있으며, 올해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인 24일 행사를 진행한다.

기념식은 이날 오후 6시 시청 야외음악당 본무대에서 열린다. 관악대 행진을 시작으로, ▲광주시민의 날 60년 회고 영상 ▲시장 기념사 ▲내빈 축사 ▲2025 시민대상 시상 ▲디자인비엔날레 1호 티켓 전달 ▲주먹밥 나눔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올해 광주시민대상 수상자인 허정 예텐 병원 원장은 의료·사회봉사·인재양성·문화역사 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

시청일원서 '시민의날 60주년' 행사… 기념식·문화공연 등 다채 초대가수 김연자 공연·물놀이·빛돌이결혼식 등 즐길거리 풍성 시민대상 시상·주먹밥 나눔 등 '연대·나눔의 광주정신' 되새겨

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기념식에는 일본·미국·인도네시아 자매 도시에서 보내온 영상 축하 메시지를 상영한다.

특히 '주먹밥 나눔 퍼포먼스'는 시민과 내빈이 함께 주먹밥을 만들어 나누며 광주의 '연대와 나눔'의 정신을 되새기는 상징적인 행사로 꾸며진다.

기념식에 앞서 오전 11시30분부터 시민과 세대가 함께하는 문화공연이 본무대에서 열린다.

▲올해 회갑을 맞은 1966년생 시민 10여 명을 초청해 전통방식으로 생일잔치를 여는 '수연례(壽宴禮)' ▲7080 레트로 음악과 광주 이야기로 구성된 '광주의 노래' ▲조선대 태권도 뮤지컬 ▲정책 골든벨 ▲꿈의 오케스트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시청 앞 도로를 '차없는 거리'로 만들어 지난해 큰 인기를 모았던 워터월드가 운영된다.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는 공간으로 꾸며진 이 공간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 시민들의 큰 호응이 기대된다.

시청 앞 잔디광장은 '피크닉 인(in) 광주'로 꾸며져 열린청사 개방과 함께 도심속 소풍공간으로 제공된다.

오후 7시부터는 광주 5개 자치구 대표 20개 팀이 참여하는 장기자랑 본선 '싱투게더 광주 시즌2'가 열린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이 무대는 자치구별 예선을 통해 선발된 시민 재주꾼들이 무대에서 끼와 열정을 뽐내고, 초대가수 김연자의 축하공연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더한다.

광주시의 정책을 시민이 직접 체험하고 평가하는 '정책평가박람회'도 이날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린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5개 분야 31개 주요 정책을 전시하며, 현장 투표와 시민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주목할 연계행사로는 '2025 광주 홍보캐릭터 대전'이 빛의정원에서 열린다. 광주 대표 캐릭터 '빛돌이'가 결혼식을 올리는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초청된 31개 캐릭터가 하객으로 참여해



이색 세리머니를 펼친다.

이밖에 ▲세계인의 날 및 문화다양성의 날 기념행사 ▲시민안전체험 한마당 ▲홍보부스 ▲플러마켓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이어져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 축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민의 날 60주년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일군 광주의 역사이자, 앞으로 60년을 함께 꿈꾸는 출발점이다. 이번 축제가 시민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광장의 기쁨을 나누는 특별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을 초청했다.

이승원 기자



광주 하늘에서 펼쳐질 '블랙이글스 에어쇼!'

'Space Challenge 2025 in 광주' 행사 일환으로 에어쇼 진행

공군 블랙이글스가 5월 22일(목), 5월 24일(토) 광주 상공을 비행할 예정이다. 이번 비행은 5월 24일(토)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 개최되는 'Space Challenge 2025 in 광주'(이하 '스페이스 챌린지') 행사의 일환이다. 블랙이글스 에어쇼는 5월 24일(토) 오전(10:20~11:30)과 오후(14:20~15:20) 두 차례 진행되며, 이를 위한 사전 연습비행은 22일(목) 오후 16시 40분부터 30분간 실시될 예

정이다. 비행이 진행되는 동안 기지 인근 및 광주 시내에 비행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이스 챌린지 행사는 누구나 별도의 사전신청 없이 입장 및 관람 가능하며, 행사 관련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공군 스페이스 챌린지'를 통해서도 실시간 문의가 가능하다.

김준현 기자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 다방면 투표 독려 눈길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설정, 조선대 축제서 홍보 활동도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발 벗고 나섰다. 먼저 최근 청사 내 행정 전화와 개인 휴대전화에 대통령선거일과 투표권 권리행사를 당부하는 내용의 통화연결음을 설정했다.

또한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와 조선간호대학교와 협의를 거쳐 오는 28~30일 열리는 '2025 조선대 대동제'에서 웹카드 뉴스 배포·홍보물 게시 등을 통해 젊은 층의 투표 참여도 독려할 예정이다.

동구는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한 톡톡 튀는 기발한 문구가 적힌 선거 홍보 현수막을 12일부터 육교, 간선도로 등 주요 거점 장소 50여 개소에 내걸어 홍보하고 있으며, 기업체와 공공기관에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공동주택 방송 홍보도 병행해 투표 참여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모바일 앱 '동구 두드림'과 SNS 구형장 릴레이 투표 독려 챌린지, 선거 홍보 영상을 활용해 홍보물을 공유하는 등 온라인에서도 투표 참여 홍보 및 선거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오철수 기자

서구, 온라인 식품 허위·과대광고 사전 차단 나서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온라인 식품 시장에서 확산 중인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서구는 오는 21일부터 2주간, 다이어트·면역력 강화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단속 및 예방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식품 유통이 일상화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노출되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허위 효능

을 강조하거나 의료적 효능을 암시하는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이에 서구는 지역 내 온라인 식품 판매 업종인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관련 업소 335개소에 법령 준수사항과 주요 위반 사례를 담은 공문을 발송해 광고 관리의 책임을 강조할 방침이다. 또한 영업신고가 되지 않은 식품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행정 민원 및 점검 시 불법 행위 적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석우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지역사회 장애인과 가족 구성원의 행복 추구를 위해 희망 더하기 프로젝트로 추진한 갱년기 여성장애인 뷰티애락 교실이 정부 관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20일 남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보건소 261곳을 대상으로 재활사업 우수사례를 평가했으며, 평가에 반영한 지표는 적절성과

광주 남구,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우수기관 선정

갱년기 여성장애인 뷰티애락 건강교실 호평

효과정, 협력성, 노력, 건강 개선도까지 5가지였다.

이번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은 보건소는 전국에 단 10곳뿐으로, 남구는 항목별로 높은 점수를 획득해 광주와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남구에서 선보인 갱년기 여성장애인 뷰티애락 건강교실은 프로그램 추진 효과와 건강 개선 등의 분야에서 큰 성과

를 거둬 조만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우수 사례집 책자에도 실릴 예정이다.

남구는 장애인 여성이 장애인 남성보다 우울·불안 비율이 높은 점을 참작, 지역 소재 기관인 호남대 뷰티미용학과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청소년 성문화센터, 광주대 식품영양학과, 호남권역 재활병원과 협력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프로그램 운영 결과 갱년기 여성장애인들은 뷰티 클래스와 힐링 클래스, 건강보

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우울감이 감소하고, 체력을 비롯한 신체기능도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또 프로그램 종료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본인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도 향상되는 성과를 거뒀다.

남구 관계자는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자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심리적 불안 문제가 있었는데, 해당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관내 장애인의 행복 추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채일 기자

1면에서 이어짐

하지만 공장 가동 중단 장기화에 따른 휴업 상태가 지속될 경우 수당규모 및 지급시기 등을 놓고 노사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지난 2023년 화재가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도 6개월 정도 생산이 중단되면서 노동자들에게 희망퇴직을 권유하는 등 인력구조 조정을 한 것으로 전해져 근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주주인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의 사고 대책이나 복구 의지가 주목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만에 하나 이번 화재로 인한 광주공장 축소에 따른 인원 감축이 현실화된다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소방 감식 조만간…법리 검토·형사 처벌은

경찰·소방은 해체된 공장 내부에 남은 잔불이 모두 꺼진 뒤 현장 감식에 나설 전망이다.

소방 당국과 지자체는 현재 잔불을 끄기 위한 공장 해체 작업에 나섰다. 현재 중

장비 2대를 동원해 공장 외부에 쌓여있는 잔해물들을 치우고 있다. 잔해물을 모두 치운 뒤부터 본격적인 공장 해체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화재는 타이어 생산에 필요한 고무를 정련하는 설비인 마이크로온 설비 주변에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 추정된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없지만 피해가 막대하고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광주청 형사기동대 안전·화재 수사팀이 직접 사건을 맡는다. 과학수사계와 형사기동대 인력이 총원쇄 전담 수사 조직을 만드는 방

안도 논의 중이다.

통상 화재 사건 관련 경찰 수사는 현장 감식을 거쳐 각종 증거와 단서부터 확보한다. 이후 화재 원인과 경위를 밝혀내고 과실 여부, 책임 소재를 가려낸다. 누군가의 과실이 확인된다면 범리 검토를 거쳐 형사 처벌할 지 검토한다.

경찰은 전날 화재 현장에 감식 요원을 보내 소방 당국의 화재조사관과 공장 외관을 둘러보는 식으로 사전 조사를 벌였다.

박도일 기자

